

2024
AUTUMN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Care & Love

이호섭 교수 · 혈액종양내과



Contents

발행인 최중순 | 발행일 2024년 9월 | 편집인 이형석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홍보협력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 051)990-3700~2 |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디자인 · 인쇄 현대출판인쇄사 051)464-5667

Kosin Spirit

- 04 약속 이행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 06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교 후기 안동윤 · 의과대학 본과 2학년

Medical Essay

- 11 회계학과가 아니라 핵의학과입니다 김희영 교수 · 핵의학과
- 14 점 가운데가 파여있거나 주변 조직보다 솟아오른다면 이형석 교수 · 성형외과
- 18 다발성골수종 10년새 2배 꺾춤 이호섭 교수 · 혈액종양내과

Culture & Life

- 21 손님 김희자 수필가
- 24 바람재에서...기장 일광산 노경만 산 · 여행작가
- 28 미국에서 온 편지 #2 정경원 교수 · 소화기내과

Kosin Inside

- 32 복음병원 명의를 만나다 구유진 기자 · 고신언론사
- 36 칭찬릴레이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 38 내원객이 칭찬해주신 우리병원 친절직원
- 39 원목실 추천도서
- 40 진료를 시작합니다
- 41 포커스뷰
- 46 KOSin 사랑in
- 48 진료시간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약속 이행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장기려 박사님께서 의대에 합격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마음 속에 간직하면서 사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자기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약속의 가치가 발휘되고 약속이 소중해 지는 것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던 장기려 박사님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복음병원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며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6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에스와티니를 다녀옵니다. 다양한 이유와 추구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방문 목적은 약속 이행이었습니다. 작년 사역에서 유방에 20cm가 넘는 종양을 가진 자매를 수술했는데 꼭 방문해서 검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을 조정해서 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시간을 내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쉽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교수님을 응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후 준비 모임에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일정을 다시 조정해서 시간을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프로미스와 한 약속을 지켜야지요!”

짧은 말씀에서 복음병원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밀려오는 환자들 속에 파묻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앞에도 또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1년만에 보는 프로미스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반가운 나머지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건강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였습니다.

“목사님, 프로미스에게 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살이 너무 빠진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역을 끝내고 에스와티니로 옮겨야 했습니다.

“제가 에스와티니를 준비하면서 임시 의사 면허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수술은 힘들지만 에스와티니에서는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전혀 없었지만 희망과 기대로 에스와티니로 향했습니다.

사역을 마친 후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 초대 학장이신 박재형 교수님께서 상기된 얼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복음병원은 남다른 병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수술장을 열고 성공적인 수술을 진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1,000명의 사람들을 진료하는 체계적인 모습,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름이 생소한 아프리카의 나라에 60명이 도전하는 것,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복음병원만이 할 수 있는 경쟁력입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그 날에 진행된 모든 일들에 대한 노학자의 총평이었습니다. 뜻밖의 칭찬에 우리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이 생소하지 않았던 것은 국내의료봉사와 해외의료봉사 때, 늘 해 왔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의학 심포지움 때 부경대학교 안예찬 교수님께서 약속 이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고신대복음병원팀과 에스와티니에 3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 때, 국경을 통과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임종하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갈등은 있었지만 약속이 중요했기에 에스와티니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으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어머니의 수발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때 알게 된 사실은 선교는 '희생'을 바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약속 이행, 그것은 희생을 바탕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려의 후예들이 열방을 향해 도전하는 그 이유는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신31:8)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일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도움 이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복음병원이 불가능한 사역에 도전하는 이유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나가는 약속, 그것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까지 약속을 이행하는 복음병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교 후기

 안동윤 의과대학 본과 2학년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여름에 '예그리나'라는 팀명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그리고 에스와티니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두 나라에 해외 단기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해외 선교를 나가는데, 그만큼 익숙하면서도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 만큼 설레면서 기대되었습니다. 또한 약 60명 정도의 대규모 인원이 약 10일 간 긴 일정으로 선교를 떠나기에 짐을 뭐 하나라도 놓치지는 않았을 지, 선교지에서 어수선하지 않게 우리가 준비한 사역을 다 할 수 있을 지, 그리고 팀원끼리 잘 어울릴 수 있을 지 불안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불안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낀 순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첫 번째로 느낀 순간은 원목실의 김영준 목사님에게 이번 선교의 정신인 'Face Mission'에 대해 들었을 때입니다. 'Face Mission' 정신, 그대로 해석하면 어려움을 직면하는 정신, 자세한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일단 도전하면서 어려움을 직면하자!' 라는 정신입니다.

이번 선교에는 약 60명의 팀원이 함께 하였고, 학생만 약 30명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Face Mission', 일단 학생들을 받을 대로 다 받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약 60명의 대규모 선교가 성공리에 마무리 된 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선교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선교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학생들을 다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예그리나가 가기 전까지의 준비 과정과 선교지에서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결과가 두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하면서 도전하고 어려움을 직면하는 정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라는 처음 가보는 대륙으로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에 '가장 힘들만한 순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긴 이동시간을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남아공으로 가는 과정도 힘들고 긴 시간이지만 특히 6~7시간 정도 버스로 남아공에서 에스와티니로 국경을 넘는 과정은 처음 들었을 때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버스에서 예그리나 팀원들이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어울리다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지루하고 힘들었을 순간에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에스와티니는 남아공과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중간에 국경을 넘어가면서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저희 예그리나 팀은 선교 목적과 더불어 에스와티니의 첫 의과대학의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에서 진행되는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위해서 에스와티니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선교를 위해서 유방외과 김구상 교수님께서 에스와티니에 의사 면허를 신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낀 순간에 대해서 다음으로 이야기 나누고자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남아공 의료선교 때에 감동을 준 이야기의 주인공 '프로미스'를 혹시 다들 아시나요? 프로미스는 남아공에서 유방암이 많이 진행된 당시 고작 20살 소녀입니다. 작년 남아공 선교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간호대학 학생들이 또래 친구가 아프다는 것을 듣고는 자신들의 장학금을 내면서 후원 릴레이가 시작되고, 그 결과 프로미스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유방외과 김구상 교수님과 성형외과 박진형 교수님의 협진수술을 성공리에 끝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 남아공 선교에서 프로미스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프로미스가 다니는 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수술한 지 약 1년이 지난 후 별 다른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 중, 안타깝게도 프로미스의 암이 재발한 것을 발

견하였습니다.

암이 재발하였지만 남아공에서는 수술받을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절망하였습니다. 김구상 교수님께서서는 잠 못 이루시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마침 김구상 교수님께서서는 혹시 몰라 미리 에스와티니에 의사 면허를 신청하셨던 것이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한 번의 'Face Mission',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 에스와티니의 기독교대학에 작은 클리닉이 있고 제대로 된 수술도구는 없지만 있는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수술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시고는 김구상 교수님과 간호사 선생님들과 프로미스는 에스와티니로 향했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먼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수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후에 현지 의사를 통해 감염 증상 없이 잘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또 학우 친구들에게 감동을 느낀 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와티니에서의 현지 의료 선교는 말 그대로 엄청 났습니다. 하루 동안 약 600명 정도의 인원에게 의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루에 수백 명을 검사하고, 진료하고, 치료하신 예그리나의 교수님,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선생님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 배경에는 묵묵히 선생님들을 도우며 땀 흘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예그리나의 학생들입니다.



원래는 문화사역(K-pop 춤과 CCD, 무언극, 인형극)을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의료사역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역 시작 전부터 많은 현지 분들이 모였기에 문화사역은 나중에 미루고 의료사역을 우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점심시간도 따로 갖지 못하고 작은 초코바 하나로 허기를 달래면서 예그리나 모두가 의료사역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료사역 끝에 문화사역을 하기에는 배도 고프고, 지치고, 힘들고 무리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웃은 얼굴로 모두가 자발적으로 문화사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현지 아이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문화사역을 진행하면서 제일 컨디션이 안 좋았을 상황에서 선교 통틀어 가장 완벽한 무대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대체 이러한 힘은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선교지만의 특별한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준비한 모든 팀원들의 수고와 희생이 돋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선교가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에스와티니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 예그리나는 모닥불에 둘러앉았습니다. 둘러 앉아 모닥불을 구경하다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공동체 예그리나의 따뜻한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선교의 준비과정과 초반의 걱정들이 모닥불의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밤이었습니다. 의료선교의 보람과 추억만이 남은 채로 우리는 밤을 즐겼습니다.



한 친구와 남아공 의료선교의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그 친구가 CCM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이자 성경의 시편 70장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말씀처럼 선교지에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그리고 경험한 것처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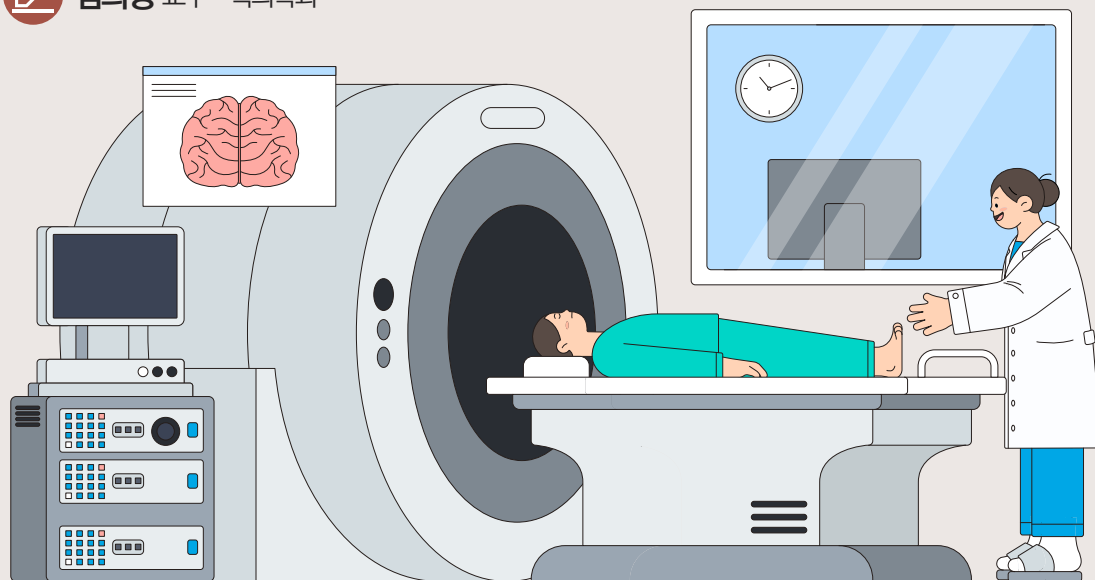
원목실의 김영대 목사님께서 선교가 끝나는 바로 다음날부터 공허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교지에서 매일 같이 붙어 지낸 팀원들이 없고 선교지에서의 정신없이 진행되던 사역이 없다보니 선교지에서의 추억이 벌써 그림고 예그리나 팀원들이 그림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깊게 느끼는 공허함만큼 선교지에서의 추억과 공동체의 따뜻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설명 드리지만 이번 선교 팀명 '예그리나'는 '예수님께서 그린 나', '예수님께서 그리워하는 나',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린' 내가 선교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워하는' 내가 되어 선교지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가 끝난 뒤에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내가 되어, 선교지에서의 추억과 느낀 감정과 마음을 잊지 않고 일상에서 힘든 순간에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학과”가 아니라 “핵의학과”입니다.



김희영 교수 · 핵의학과



‘핵’과 ‘방사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자연스럽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떠올리는 분이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능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불을 사용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화력발전소는 불을 이용해 물을 끓인 후 증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이렇게 유용한 불이지만 사고로 불이 나면 오랜 시간 가꾸어 온 숲을 모두 태워버리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 방사능 물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방사선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 피해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지만, 잘 통제된 방사능 물질이 생산하는 방사선은 병원과 공장에서 또는 발전소 등 일상 생활에서 더없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핵(核)은 본래 사물의 중심을 뜻하는 한자로, 씨앗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인싸’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핵’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인싸’는 ‘인사이드’(insider)의 줄임말로, 사회적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핵인싸는 사회적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고,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핵꿀잼, 핵주먹, 핵불닭볶음면 등 ‘핵’이라는 단어는 강조의 표현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매우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원자의 중심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입자를 핵이라고 부릅니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갤 수 있는데, 이 중 양성자의 수는 원자를 이름짓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양성자 1개를 가지는 원소는 수소라고 부르고, 양성자를 6개 가진 원소는 탄소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핵은 원소의 본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입자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성자끼리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를 밀어내는 척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 중성자가 양성자 사이를 연결해주어 흩어지지 않는 한개의 덩어리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원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 평화로운 상태에 있고, 우리는 이런 원소를 안정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연에는 일부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의 균형이 깨어진 원소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원소의 핵은 양성자가 서로 밀어내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원자핵이 흩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들을 불안정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불안정 동위원소는 같은 양성자 수를 가지는 원소의 원자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르고, 때문에 이들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거의 동일하지만 방사성 특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즉, 방사선을 만들 수 있는 원자가 되는 것이지요.

방사선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방사능 물질이 만들어 내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으로는 방사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방사선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도 방사선이 존재합니다. 땅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 대기중으로 내보내는 라돈 가스나 바나나에 존재하는 칼륨-40 같은 자연방사선에 우리는 24시간 노출되어 있죠. 하지만,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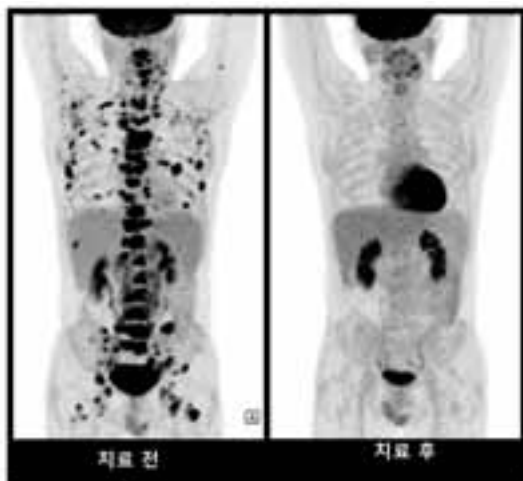
우리 생활 주변에는 이러한 자연방사선 이외에도 방사선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방사선 또한 존재합니다. 병원은 대표적인 인공방사선 사용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엑스레이 검사와 씨티 검사, 암을 치료 하는 방사선 치료법 등이 그 예입니다.

핵의학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원자핵이 만들어 내는 방사선을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는 의학의 세부 분야입니다. 원자핵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 중 하나인 감마선은 대표적인 고에너지 전자기파로 매우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투과성이 좋아 사람의 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마선의 특징을 활용하면 사람의

몸을 열어보지 않고도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 또는 병리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펫-씨티 (PET/C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라는 검사법의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펫-씨티 검사는 동위원소를 부착한 약물(이것을 '방사성 의약품' 이라고 부릅니다)을 혈관을 통해 주사하고, 그 약물의 체내 위치를 방사선 감지 카메라로 추적하여 의료 영상을 촬영하여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법 입니다.

방사능 물질인 동위원소를 몸 속에 주사하다니! 괜찮은걸까? 상상만으로도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펫-씨티를 통해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복부씨티 촬영과 그 정도가 비슷한 뿐 아니라, 체내에 주사한 방사성의약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사 작용과 붕괴 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림프종 환자의 F-18 FDG PET/CT Torso 영상

치료 전 영상(왼쪽)에서 전신에 포도당 대사 증가를 보이는 다발성의 종양이 확인됩니다. 항암제 치료 후 영상(오른쪽)에서 종양이 모두 없어진 예입니다.

F-18 FDG (F-18 Fluorodeoxyglucose) 라고 하는 방사성의약품은 현재 펫-씨티 촬영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F-18 FDG 는 포도당을 변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포도당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탄수화물로 우리 몸을 유지하는 연료로 사용됩니다.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고혈당, 너무 적게 있으면 저혈당이 됩니다. 이러한 당 대사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질병을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뇌는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연료로 활발히 사용하는 장기로 열심히 머리를 쓰고 난 이후에 단 음식이 먹고싶은 생각이 든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것입니다.

포도당에 F-18 이라는 불소의 방사성동위원소를 결합하여 만든 방사성의약품이 F-18 FDG입니다.

F-18 FDG를 혈관에 주사하면 포도당 대사가 활발

한 조직에 섭취가 되고, 펫-씨티라는 장비를 통해 F-18 FDG 의 분포를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F-18 FDG 펫-씨티는 암의 진단 성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검사법입니다. 암 조직은 조절되지 않는 세포 분열과 성장을 특징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포도당을 아주 많이 소모합니다. F-18 FDG 펫-씨티에서 암 조직은 정상 조직보다 F-18 FDG 섭취가 증가되어 있고, 이 과정을 펫-씨티를 통해 영상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씨티 검사보다 크기가 작은 암을 조기에 발견 할 수 있고, 수술 등으로 인한 치료 변화를 예민하게 확인할 수 있어 암의 진단과 치료 반응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펫-씨티는 1회의 F-18 FDG 의 주사로도 전신을 한번에 검사할 수 있어 전이를 특징으로 하는 암의 진단에 적합한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18 FDG 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영제 부작용 또는 신장기능 저하를 보이는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펫-씨티 검사라고 하면 F-18 FDG 검사가 가장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F-18 FDG 이외에도 다양한 방사성 의약품이 개발되어 암 이외의 여러 종류의 질병의 진단에 펫-씨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진단에 활용되는 FP-CIT 펫-씨티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단에 활용되는 아밀로이드 펫-씨티가 대표적인 예시 입니다. 파킨슨병 또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병은 대표적인 신경퇴행성질환으로 확진을 위해서는 뇌의 조직검사를 해야 해서 사실상 살아 있는 환자에서는 확진이 거의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정상(아밀로이드 음성)



알츠하이머 치매 (아밀로이드 양성)

아밀로이드 PET 영상. 왼쪽 영상은 정상 환자의 사진으로 뇌의 아밀로이드 축적이 없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로 뇌에서 아밀로이드 축적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펫-씨티 검사법이 개발되면서 뇌의 조직을 얻지 않고도 영상 검사만으로 조직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되면서 진단과 치료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립선암에 특화된 PSMA 펫-씨티와 PSMA 전립선 암 치료제가 국내 허가를 준비하고 있어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핵의학과에는 오늘 소개한 펫-씨티 검사법 이외에도 다양한 검사법과 치료법이 있습니다. 현재 허가되어 활용되고 있는 검사법이나 치료법 이외에도 핵의학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의학의 핵발전소와 같은 분야입니다. 올해에서 비롯된 약간의 두려움 너머에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 가능한 핵의학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희영 교수 | 핵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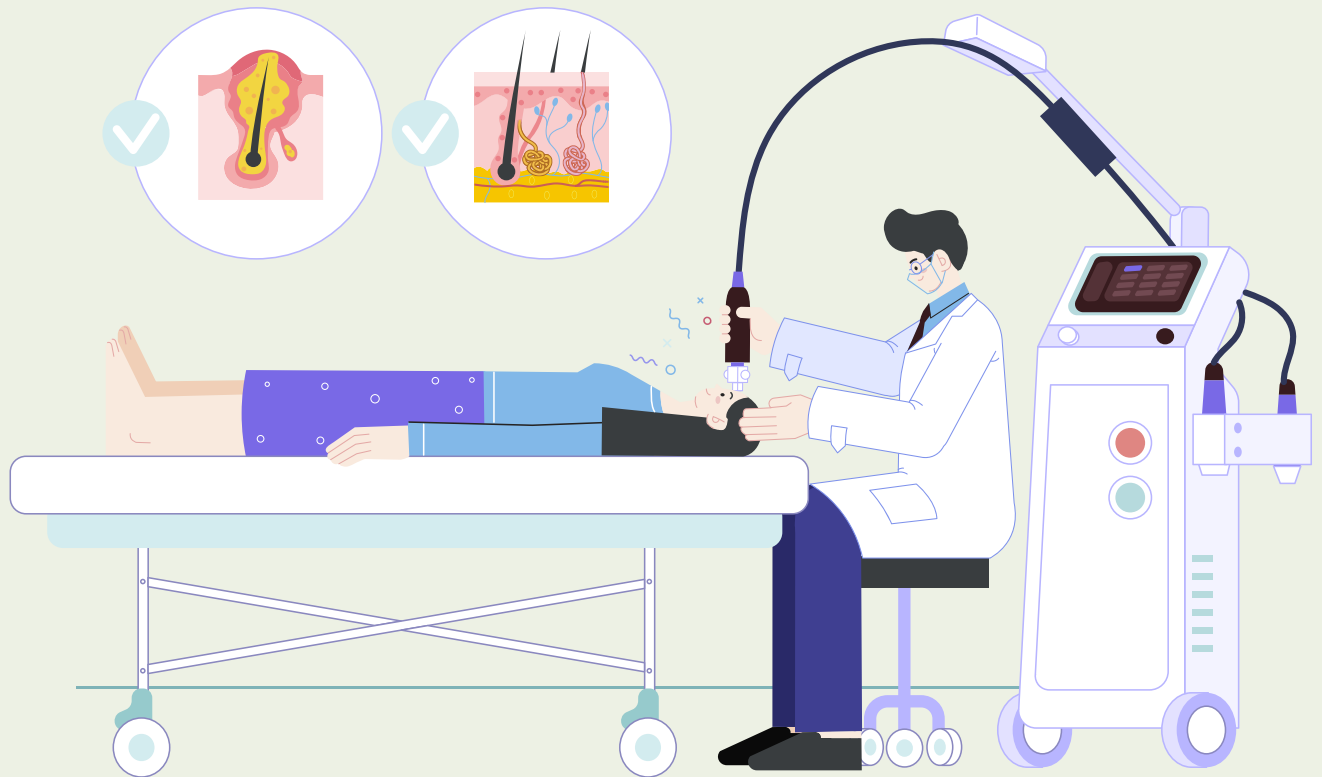
+ 전문진료분야

핵의학과 일반진료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외래		외래		

점 가운데가 파여있거나 주변 조직보다 솟아오른다면... 피부암

 이형석 교수 · 성형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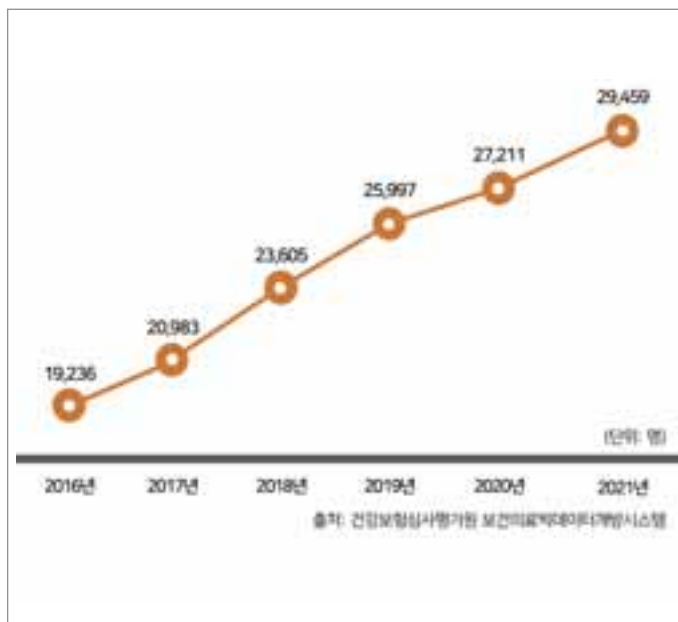
뜨겁고 습한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며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리고, 단풍 구경이나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잦아집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를 느끼기 위해 많은 이들이 야외로 향하지만, 가을별은 여름 햇볕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적게 쓰고는 합니다. 하지만 햇볕의 강도와 상관없이 가을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외선은 남중고도가 높아 태양 빛이 지구 표면에 강하게 도달하는 여름에 강도가 강하고, 가을에는 그보다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의 먼지, 습도 등에 의해서도 자외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습도가 낮고 대기가 깨끗한 가을에 자외선이 대기 중에 흡수되지 않고 지구 표면에 도달하여, 사람이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은 일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많아서 구름이나 비에 의해 자외선이 차단되는 빈도가 낮으며, 특히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UV-B를 대부분 차단하는 오존층이 한반도가 있는 북반구에서는 가을에 가장 얇아집니다. 따라서 여름보다 자외선의 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가을에도 자외선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피부암의 원인으로는 오랜 자외선 노출, 만성적 피부자극이나 각종 발암성 화학물질 노출, 바이러스 감염 및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자외선 노출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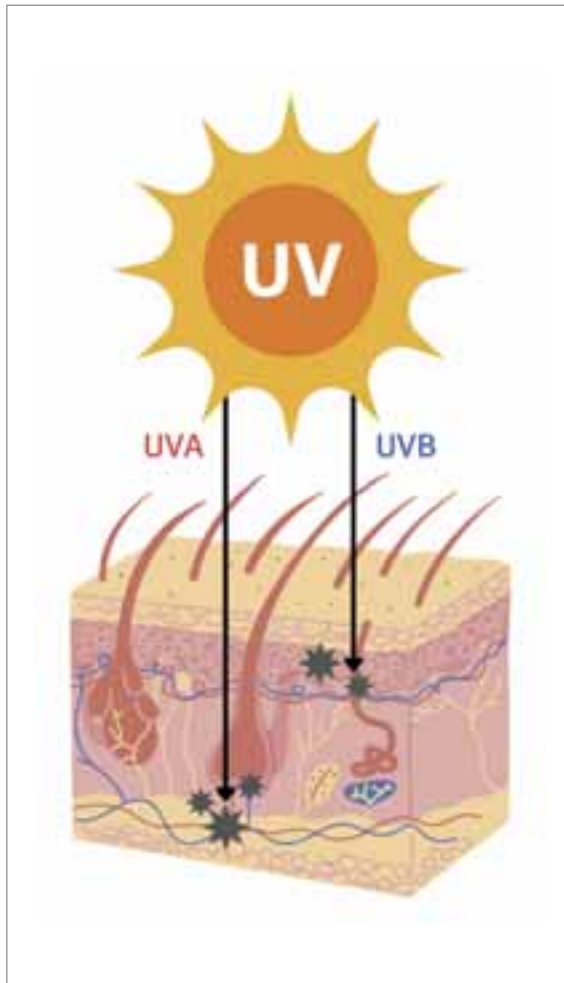
뜨거운 햇빛 아래 지나친 자외선 노출은 피부 노화, 시력 손상, 백내장, 피부암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피부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명이 늘면서 일생동안 피부에 닿는 자외선 양이 증가한데다, 오존층이 얇아진 데 피부암 발생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표] 우리나라 피부암 환자 수

2023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77,523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는데, 그 중 피부암은 남녀를 합쳐서 연 7,470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80대 이상이 35.9%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8.2%, 60대가 20.2%의 순으로 고령 환자가 많았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은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는 DNA에 손상을 입혀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자외선은 크게 자외선(Ultraviolet: UV) A,B,C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피부암 발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UV-A와 UV-B입니다.



[그림]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UVA, UVB

UV-A는 파장이 길어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하여 활성산소를 생성해 피부노화를 일으키고 간접적으로 DNA를 손상시켜 발암 가능성을 높입니다. UV-B는 파장이 짧아 피부 표피층까지만 도달하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DNA의 변성을 직접적으로 일으킵니다.

간혹 환자들 가운데 점이나 검버섯을 피부암이 아닌가 걱정하는 환자들 많이 있기도 하지만 피부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부암을 바로 알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완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흔하게 생기는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기저세포암은 주변 조직보다 솟아 올라있는 융기된 형태이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가운데가 쥐 뜯어먹은 양상을 보입니다. 한 부분으로 퍼지는 국소 침윤이 많고 다른 장기 또는 임파선으로의 전이는 드문 암입니다.

편평세포암은 국소 침윤이 깊은 양상을 보이며, 주변조직에 비해 빨갛게 상처가 난 듯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는 등 궤양이 있거나 빨처럼 각질이 과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 주변, 다른 장기와 임파선 전이도 있어서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은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할 수 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적 완전 절제가 근본 치료법인데 수술 후에는 자른 피부를 현미경으로 살펴서 경계부위에 암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암이 남아있다면 추가로 잘라내서 완벽히 제거합니다.

과도한 자외선 노출로 생긴 피부암의 경우 주로 눈 주변, 귀 앞, 얼굴 정면에서 볼 때 H자 모양 위치에 발생하게 됩니다. 얼굴의 H자 자리 사이에는 눈, 코, 입 그리고 귀가 위치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생긴 피부암의 경우 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종양만 제거한다면 얼굴의 중요한 구조물이 틀어져 비대칭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암의 위치와 심각성에 따라 얼굴 형태의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형외과 재건 수술의 목표는 손상된 피부조직을 치료하고 되살려서 환자가 만족할 만한 미용적,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형외과 재건 수술이 피부암 치료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치료과정에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고 수술전 CT촬영을 통해서 임파선 전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형외과 재건술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병변의 경우에는 제거 후 결손부위 양측의 피부를 당겨 봉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결손이 큰 경우에는 결손의 크기와 부위에 따라 피부 이식술, 국소 피판술, 유리 피판술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재건합니다.

피부 이식술은 얼굴에 있는 피부의 색깔과 두께가 가장 유사한 귀 뒤쪽의 피부를 채취하여 이식합니다. 이식된 피부는 결손부위에 생착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적인 피부에 가까워집니다. 채취한 귀 뒤쪽의 피부는 일차 봉합하여 추가적인 흉터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피부 이식술이 단순히 피부층만 이식하는 방법이라면, 피판술은 혈관을 포함하는 피부덩이(피부층보다 두꺼운 형태)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결손 부위 주변의 여유 있는 부분에서 피부덩이를 옮겨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방법이 국소 피판술이고, 먼 곳에 있는 피부덩이를 이식하는 방법을 유리 피판술이라고 합니다. 결손 부위가 작다면 주로 국소 피판술로 재건하고, 주변 조직이 부족하여 국소 피판술이 부족한 경우 유리 피판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얼굴 구조물들의 크기와 위치, 좌우 대칭을 유지하며, 수술한 부위가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암 절제와 동시에 재건을 시행합니다.

야외활동, 특히 등산, 낚시, 단풍 구경 등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는 활동을 계획할 때는 자외선 지수를 확인하여 계획을 조정하는 등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야외활동 시 피부를 가릴 수 있는 긴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내 기다렸던 만큼 마음껏 누리고 싶은 이번 가을, 모두 자외선을 유의하며 건강하고 즐겁게 가을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



이형석 교수 | 성형외과

+ 전문진료분야

당뇨발, 욕창, 피부암, 눈성형, 두경부재건, 소아성형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다발골수종 10년 새 2배 '평균' 70세 이상 환자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불가... 약물 치료가 관건



이호섭 교수 · 혈액종양내과



평균 발생 연령이 68세인 '이 질환'은 대표적인 노인성 혈액암으로 불립니다. 3대 혈액암으로 꼽히는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암으로 변해 골수에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환자 수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다발골수종을 진단받은 국내 환자 수는 1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10년 전(4658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발골수종의 초기 증상은 빈혈, 골절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기에 조기 발견이 쉽지 않

습니다. 또 고령 환자가 많아서 필연적으로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등과 같은 다양한 만성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에 무기력, 피곤, 부종과 같은 다발골수종 징후가 생기더라도 기존 만성질환의 증상과 구별이 어려워 고령층 환자 진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2022년 기준 고령(60대~80대 이상) 환자는 전체 다발골수종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2012년에 76.8%로 보고된 뒤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다발골수종의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및 소변검사와 함께 골수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혈액이나 소변에서 검출되는 비정상 단클론단백(M 단백질)을 확인하고 골수 내 클론성 형질세포를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단순 방사선검사(X-ray) 및 전산화 단층 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영상학적 검사를 진행하거나 종양에서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단이 어려운 다발골수종은 치료 역시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다발골수종 치료는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와 함께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해 장기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하게 되지만, 문제는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입니다.

이들 연령대는 국내 요양급여 기준 상 이식 가능 연령에 포함되지 않아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없이 항암 치료만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기준 골수이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0대 이상의 고령 환자는 전체 다발골수종 환자에 절반을 넘긴 52%로 집계됐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장기 기능이 저하되는 사례가 많아 치료 합병증 및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나이, 동반 질환 여부, 전신 상태, 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중간/쇠약’으로 분류하는 지표(Frailty Index)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항암 치료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통 젊은 환자에게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전에 시행하는 1차 치료보다는 부작용이 적은 약제 조합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임상현장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VRd(보르테조미+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 대개 8주기 간 진행합니다. 이후 보르테조미를 제외하고 ‘Rd(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요법을 질병 진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 방향은 암치료에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나타납니다. 해당 연령대의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들의 경우 VRd 요법을 가장 강력한 선호요법(category1)으로 추천했습니다.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연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70세 이상의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1차 치료에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령에서는 나이에 따른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약제를 감량해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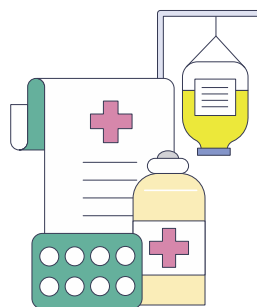
료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환자는 1차 치료 목표 설정 시 약물치료에 따른 효과 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이나 치료 합병증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상당수의 고령환자가 동반 만성 질환을 갖거나 상대적으로 병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적극적인 치료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 중에서도 전신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거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3제 요법보다는 약물을 줄인 2제 요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를 테면 VRd 요법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고령 환자들은 처음부터 레날리도마이드, 텍사메타손 2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Rd 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해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다만 텍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제제로 지속 투여 시 고혈압 및 당뇨 등 여러 부작용 위험이 있어 Rd 요법 진행 후 텍사메타손은 중단하고 레날리도마이드 단독 요법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또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DRd(다라투무맙+레날리도마이드+텍사메타손)' 병용 요법도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고령층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1차 치료에서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옵션이 제외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해 전략적으로 초기 치료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중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따라 적극적으로 용량, 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



이호섭 교수 | 혈액종양내과

+ 전문진료분야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손님



김희자 수필가



맨몸을 드러내던 앞산이 봄빛으로 차오른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물오름 달이다. 숙소 설흘재(雪屹齋) 문을 열고 두 번째 맞이하는 봄이다.

내 소유의 뜰에 키 작은 꽃이 차례로 피기 시작한다. 복수초, 풍로초, 크로커스, 민들레, 제비꽃……. 꽃이 모이면 빛이 된다는 말을 실감하며 마당으로 나가는 횃수가 잦다. 꽃나무가 꾸는 꿈처럼, 설흘재에서 내 생의 마지막 꿈을 꾸다.

사랑채에 머물던 손님이 퇴실할 시각이다. 인기척을 느낀 반려견이 꼬리를 치며 찾아댄다. 퇴실하는 걸 알아챈 녀석이 손님을 배웅하자는 것이다.

어제 오후에 입실한 손님은 다정한 부부와 어여쁜 여자아기였다. 아가 이름은 우주, 태명은 꽃님이었다고 했다. 꽃을 좋아한다는 우주 엄마의 얼굴이 활짝 핀 꽃처럼 환했다. 우주 아빠는 봄꽃 같은 아내와 딸을 위해 분주했다. 마당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만찬을 즐겼다.

돌을 갓 넘긴 아가가 무얼 느끼겠는가 싶어도 우주는 영리했다. 나를 보더니 앙증맞게 윙크하고, 머리위로 양팔을 올려 하트를 그렸다. 아빠 엄마가 껌칙하게 키우는 듯했다.

가족사진을 찍어달라기에 렌즈를 열었더니 어찌나 행복해하는지. 저게 바로 가족이고, 사랑이구나 싶었다. 뒹뚱~뒹뚱. 걷기조차 힘겨운 우주가 꽃향기를 맡는 시늉 하며 마당을 나갔다. 봄날 아침, 전라도에서 온 우주 네가 설흘재에 머문 후 떠났다.

꽃과 책이 있고, 음악이 흐르는 설흘재. 말로 다할 수 없는 손님이 다녀갔다. 방방곡곡에서 손님이 오셨다. 첫 손님은 서울에서 오신 모녀였다. 어머니는 출

판사 대표이고, 딸은 작가였다. 첫 손님이 문학과 관련 있어서 의미심장했다.

먼 인천에서 버스를 타고 와 하루 묵고 가는 손님도 있었고, 대구에서 온 손님은 구순 된 노모를 모시고 와 복닥대며 이틀 동안 머물다 갔다. 가족끼리 와서 조용히 머물다 가는가 하면, 선남선녀가 사랑을 나누다 가기도 했다. 홀로 와서 음악 듣고 책을 읽다가 안온하다며 하루 더 머물다 가기도 했다. 벌써 세 번째 다녀가신 손님도 있다.

어느 날엔 수도권에서 사흘 동안 머물 배우 가족이 왔다. 아빠는 험담하고 꽤나 이름 있는 배우였다. 순수하고 인성 좋은 부모를 닮아 아들딸도 예의 바르고 밝았다. 호텔보다 아늑하여 좋았다며 설흘재는 곧 사랑이라 했다.

미국에 사는 딸이 귀국하여 가족여행을 온 팀도 있었다. 자연적인 다랭이마을과 한국적인 설흘재를 선택해서 왔다고 했다. 열 살 때부터 미국에 산 딸과 동생을 위해 엄마와 아들 내외가 머물고 갔다. 오랜만에 상봉한 가족이 좋은 추억 만들어 간다고 해서 어깨가 우쭐해졌다.

태교 여행을 와서 닳새 동안 머물다 간 강원도 부부는 몇 달 후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셨다. 아기가 자라면 함께 방문하겠다고 했다. 대구에서 계절마다 다녀가는 부부도 있고, 먼 원주에서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해마다 예약하는 분도 있다.

마당에 주차하고 내린 손님을 보고 놀란 적도 있었다. 만삭에 가까운 아리따운 여인이 무거운 몸으로 먼 길을 달려와 주어 가슴으로 안았다. 용감한 어머니를 닮은 아가가 태어나기를 기원하며 고구마를 구

워서 드렸다. 마냥 좋아하는 손님들을 위해 무엇이든 나누고 싶다.

어디 그뿐인가. 시흥에서 온 부부는 내 수필집을 읽고 살아가는 힘을 얻었다며 리뷰를 남기셨고, 여행 길에서 만난 배탈로 힘들었는데 내가 건네준 약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며 손 편지와 옷을 보내와서 감동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설흔재를 운영하며 사는 행복이다.

독채라 자유롭고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좋은 공간이라 했다. 하하 호호 정감 어린 대화가 오가고, 특히 잠이 잘 온다고 했다. 침실은 오래전, 아버지 형제들의 신혼 방이라 평안한 듯했다. 어머니는 안채 마루에 앉아 다녀가는 손님에게 손을 흔드셨다.

손님 중 열의 아홉은 후기를 남겼다. 방명록을 읽어보면 글쓴이의 심성이 드러나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손님들은 앞서 다녀간 사람의 글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고, 자신도 글을 써보고 싶다는 충동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무는 이들은 시인이요, 작가가 된다. 쉬터가 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손님들이 써두고 간 방명록은 책으로 남아 설흔재의 흔적, 역사가 될 것이다.

다녀간 분들이 건넨 선물 또한 다양했다. 어머니 계신다며 귀한 떡을 사 오시는가 하면, 퇴직 기념 여행으로 다녀간 부부는 제주 모시떡을 선물로 보내주시기도 했다. 고양이들 잘 키우라며 사료를 보내주는 분도 있고, 귀한 용품을 선물하는 분도 계셨다. 숙박비를 더 올리라고 했지만, 내 마음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 소박한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감사할 뿐, 내 수고쯤은 감수하기로 했다.

사랑채를 단장할 땐 내 글 쓰는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꽃단장하고 보니 혼자 사용하긴 아까워서 숙소로 내기로 했다. 청결을 으뜸으로 하며, 꽃나무를 심고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꾸몄다. 손님들은 넘치지도, 궁하지도 않은 곳이라 더 좋다고 했다. 사랑채의 본래 의미와 일치하니 얼마나 뜻있는 일인가.

이곳에서 머문 시간이 손님에겐 아련한 추억이 되고, 잔잔한 그리움으로 남았으면 한다. 설흔재雪屹齋라는 숙소 이름처럼 설흔산 아래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길 바라는 내 마음이 통하는 듯해서 흐뭇하다.

산다는 건 무엇일까. 부, 명예보다 의미와 보람이 우선이다. 명성을 떨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이다. 고향 집에서의 삶이 이 정도면 난 만족한다. 손님이 행복하면 나 또한 기쁨이다.

길고양이 가족이 마당에 산 지 삼 년이 넘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서 챙겨 먹였더니 식구가 되었다. 별 좋은 날, 마당에 별러덩 누워 있는 고양이 가족을 본 손님들이 평화! 그 자체라고 하니 그것이면 족하다. 꽃샘추위의 시샘을 이겨내고 마당의 꽃들이 피기 시작한다. 일러주지 않아도 순서대로 오는 꽃. 어느새 마당이 봄 손님으로 환하다. 사랑채에 손님이 드니 집이 환하고 살아있다.

고향집과 연이 깊어 내가 정착한 것처럼, 손님도 우리 집과 연이 닿아야 올 수 있다. 아무리 오고 싶다고 해도 인연이 닿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설흔재에 들까? 🍂

바람재에서.....

기장 일광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日光山

316m



일광산은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산이다. 해발 316m로 높지는 않으나, 이름 그대로 찬란함을 흠뻑 머금은 산이다. 일광(日光)은 햇빛이다. 동해에서 해가 떠오르고, 그 순간 해가 쏘아낸 첫 한줄기의 빛이 가장 먼저 가닿는 곳. 그곳이 일광산이다. 해가 쏘아 보내준 빛살을 심장에 맞아 오래도록 따스하고 찬란한 산이다.

빛살을 맞은 산

일광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곳이다. 바람재로 가는 길은 쌍다리재에서 오르는 길과 황금사, 기장향교, 백두사, 신도시 황계공원 등에서 시작한 후 임도를 따라 오르는 길이 있다. 잠시나마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쌍다리재에서 오르는 길을 권한다. 다른 길에 비하여 거리가 조금 멀긴 해도 오름이 무난하고 역새풀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

다른 길은 널찍한 임도를 걸어서 보다 수월하게 바람재에 도착할 수 있다. 쌍다리재 길은 부산에서 버스(36, 183, 187, 188번)를 타고 만화리영락동산 정류장에서 내려 산행을 시작한다. 다른 길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물론 어느 길을 택하든 일광산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다.

오늘은 정갈한 정취가 물씬 풍기고 소문자자한 흙시루라는 한정식집을 잠시 구경하고 기장향교를 들렀다가 오르는 길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이 길은 동해선 일광역에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타고 이진블루1차, 태영아파트 정류소를 내리면 된다.

기장향교에서 햇빛 내리쬐는 오르막 도로를 지나서 굴다리를 통과하면 바로 산행 초입에 다다른다. 도로를 버리고 좌측으로 난 숲길로 들어서면 된다. 5분여 정도 오르면 테마임도에 도착하고, 임도를 건너서 계속 오르막 숲속으로 들어가면 일광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다. 임도를 따라 좌측으로 걸으면 보다 수월하게 바람재로 갈 수도 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계속 오르막이다. 길이 험한 곳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는 하여야 한다. 요즘처럼 더운 날의 산행이란, 흡사 따뜻한 물을 틀어놓은 샤워기 속으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숲길이긴 하여도 바람이 없어 온몸이 땀에 젖는다. 절반쯤 오르면 바람재로 가는 갈림길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다. 잠시 목을 축이고 쉬을 한 후에도 정상까지는 계속 오르막길이다. 안타깝게도 조망이 트이지도 않는다.

정상에 다다르면 비로소 하늘이 열린다. 뜨거운 햇살이 천지로 쏟아진다. 바위 위에 올라서면 우거진 숲 너머로, 우거진 아파트 숲 너머로 동해바다가 보인다. 파란색 물들은 장관의 바다. 시야는 참 시원해 보여도, 그러나 바람은 그 풍경에 숨을 멈춘 듯하다. 남쪽과 서쪽으로 펼쳐진 풍경 위로도 무더위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다. 아마도 저물녘 노을의 풍경은 여명의 동해 일출을 바라보는 것만큼 장관일 터이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바람재이다

정상을 벗어나 잠시 후면 놀랍고도 시원한 장소가 짝하고 나타난다. 마치 초원처럼 펼쳐진 능선의 언덕배기. 바람의 언덕이라고 불려도 좋을 듯 널찍한 풀밭이 펼쳐져 있다. 실제 바람재는 더 아래에 있지만, 여기가 진짜 바람재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절로 일어난다. 병풍처럼 둘러싼 나무들이 오후의 햇빛을 가려주고, 정상에서도 불어오지 않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솔솔 불어온다.

벤치에 앉으니 일광 신도시 아파트 숲 너머로 보일 듯 말 듯 일광포구가 감춰져 있고, 그 너머



로 파란색을 청량하게 머금은 바다가 보인다. 눈도 마음도 시원해지는 풍경이다. 아주 오랫동안 바람과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만끽한다. 뜬금없이 나른함이 밀려오고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는 마지막 여름날의 오후. 하여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충만해지는, 계절이 지나는 길목에 잠시 쉬었다가 가는 느낌이다.

내려가는 길은 침목이 놓인 계단으로 시작된다. 신도시를 지나 일광역 방향으로 가는 하산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때론 평탄한 숲길을 지나기도 한다. 절반쯤 내려가면 정자가 있는 임도와 만난다. 일광산을 한 바퀴 휘감아 도는 테마 임도는 가까이에 살거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천천히 걸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하다. 그림 같은 나무의자도 하나 놓여있다.

정자 뒤편으로 난 내리막길을 계속 이어가면 샘물이 졸졸 흐르고 운동시설이 있는 쉼터에 다다른다. 그러면 마침내 산행이 끝난다. 포장도로를 따라 고속도로 아래로 난 굴다리를 지나면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끝 황계공원이다. 일광역 또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거나하게 뒤풀이라도 하고 싶어지는 여름날의 저물녘 일광포구엔 바람결에 묻어오는 바다 내음이 물씬하다. ♡



미국에서 온 편지 #2



정경원 교수 · 소화기내과



안녕하세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는 정경원입니다. 현재 저는 2023년 9월부터 미국의 동부 버지니아주립대학병원(University of Virginia, UVA) 소화기내과(중재적 내시경 분야)로 연수 중입니다.

버지니아주는 미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곳으로, 미국 첫 5명의 대통령 중에 4명이 버지니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2달러에 새겨진 대통령)이 퇴임 이후 1819년에 자신의 고향인 샬롯츠빌이라는 곳에 이 UVA를 설립하였습니다.



가운 받은 첫 날 기쁜 마음으로 배정된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

버지니아주는 워싱턴 D.C.하고 붙어 있어 정치문화적으로도 중심지 중에 하나이지만, 샬롯츠빌은 워싱턴 D.C.로부터 2시간이 떨어져 있는 대학 중심의 작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UVA의 교수나 연구원, 대학원생 등과 같이 대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날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계절이 있고 여름에는 한국처럼 습하지만 많이 덥고, 가을은 단풍이 정말 아름답고, 겨울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눈도 내립니다. 사계절이 있어서인지 계절이 주는 시골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중심에는 토머스 제퍼슨이 설계한 로툰다(Rotunda)라는 건물이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주위가 계절의 느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버지니아주립대학의 중심 건물인 로툰다 주위의 계절 변화를 기록한 사진들



제가 이 곳(UVA)에 연수를 결정하게 된 것은 먼저 오래된 좋은 기억 때문입니다. 전공의 4년 차 시절 1개월동안 UVA 소화기내과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미국 소도시의 평화로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활기찬 대학 중심 문화와 선진화된 미국 병원의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잠시 다녔던 샬롯츠빌 한인 교회에서, 이 곳 대학생, 대학원생들과 함께 나누었던 짧지만 좋았던 신앙 생활의 기억이 이곳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이곳에는 제가 주로 시행한 내시경적 중재적 시술인 위암, 식도암에 대한 내시경 절제술과 아칼라지아(식도이완불능증) 환자에 대한 경구내시경적근절개술을 활발히 시행하고 계신 Dr. Wang 교수님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로 이곳에서의 연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공의 시절의 Dr. Wang과 찍은 사진과 현재. 세월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Dr. Andrew Y. Wang은 이 버지니아주에서 처음으로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을 시행한 의사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지니아 북부 지역의 한인들도 이 곳까지 와서 진료 받고 시술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 환자에게 아시안 위 질환에 대한 경과와 앞으로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경험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내시경실에서 조심스럽고 소심한 모습으로 참관을 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내시

경시술을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교수님도 여유가 있으셔서, 저도 많은 점들을 서로 소통하며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내시경 문합기계인 OverStitch라는 기계를 사용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내시경 앞에 재봉틀 같은 것을 붙여서 진행하는데, 이곳에서는 이걸로 내시경 시술로 제거한 부분을 꼬매주기도 하고 또 천공 등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문합을 진행하기도 하여 좀 더 안전하게 시술을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처럼 입원이 힘들고 주로 당일 시술 후 퇴실 하는 경우에는 아주 유용한 것 같고, 이 기계가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올 예정이니 여기에서의 경험이 돌아가서 이 기구를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 문합기구에 대한 자료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의



OverStitch 기구를 장착한 내시경의 모습과 핸드온에서 직접 내시경 문합을 시행할 때 사진

치료 성과가 한국에 돌아가서 시행할 제 환자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전임의 핸드온 교육(Hands-on)에서 저도 참여할 기회를 주어 이 문합기구를 직접 사용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병원과 이 곳이 어떤 시스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고, 돌아가서 어떤 점을 시도해 볼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연수하고 있습니다. 진정내시경의 방법과 대처 방법, 내시경 시 시행하는 여러가지 도구와 사용방법들의 차이, 전임의 교육 방법의 차이, 질환에 대한 캠페인 방법의 차이 등을 느꼈고, 미국의 이런 시스템들을 보고 배우면서 연수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내시경 시 사용하는 산소 마스크, 가운데 십자 모양이 쉽게 찢어지면서 내시경 기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혹시 나오는 이산화탄소 측정도 가능하게 튜브 연결이 설계되어 있어 환자의 호흡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 중 한두 가지만 자세히 언급을 하자면, 진정내시경에서 산소 마스크가 장 윗부분을 십자 모양으로 흡을 파서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산소 요구량이 있거나 폐질환이 있는 고위험 환자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내시경을 시행하면 비캐놀라(nasal cannula)로 투입하는 산소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시경을 하면서 “늘 코로 숨쉬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내시경을 받아보면 그제 말처럼 쉽지 않음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장암이 더 흔한 미국에서는 병원 직원과 의대생,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에 대한 캠페인을 병원 식당에서 열었습니다.

대장 그림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으면서 대장내시경 필요성을 홍보하고, 대형 대장 내부 모형 풍선을 설치하여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경험을 하게 하였는데, 이후 직원들이 느끼는 대장암 경각심

효과가 참 좋았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워싱턴 D.C.에서 소화기내과 학회 중 전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인 DDW 2024가 열렸습니다. 연수지와 가까운 전일 참석하여 새로운 연구와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고, 한국에서 해온 다국적 다기관 연구에 대해서 직접 구연 발표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받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해외 학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회 마지막 날에는 메릴랜드주립대학병원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버지니아주립대학 뿐 아니라 메릴랜드주립대학병원의 시스템과 시술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개인적인 저의 발전 뿐 아니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저와 가족의 행복한 시간 만들기 입니다. 한국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빠역할, 남편역할을 잘 못했지만 여기서는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끈끈한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11살로 한국에서 배워온 영어가 잘 통하는지 이 곳 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보내고 있고 축구, 농구, 수영, 테니스 등 각종 스포츠를 배우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잘 사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각종 리그 경기에



병원 직원식당에 설치된 대형 대장 모형 풍선 내부에서 찍은 기념 사진



소화기국제학회인 DDW 2024에서
구연 발표 모습

참여하며 실전의 경험을 통해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니, 아이에게 더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쌍둥이들은 이제 5살이라서 영어가 잘 안통하지만 몸짓, 손짓, 표정을 충동원하여 유치원에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 가족은 주로 근교지를 다닌 것 같습니다. 연휴에는 집에서 1시간 거리인 세년도어국립공원에 들러 산에서 바라보는 멋진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2시간 거리인 워싱턴 D.C.에 가서 문화 유적지와 박물관들을 관람하거나 3시간 거리인 버지니아 비치에 가서 고운 모래, 파도와 함께 시간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3시간 거리면 멀게 느껴졌지만, 여기는 미국이라서 그런지 3시간이면 다들 가깝다고 해서 저희도 점점 거리 감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저희 가족은 여기서 샬롯츠빌 한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교회안에서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서로 교류하면서 많이 배우고 깨닫고 다짐하는 믿음의 성장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추수감사절 행사, 부활절 행사, 야외 예배 등을 통해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신앙생활의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 역시 교회생활을 통해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을 통해 더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육아에 애쓰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1시간 거리에 있는 세년도어 국립공원
스카이라인 드라이브에서 찍은 가족 사진



샬롯츠빌 한인교회 추수감사절 기념 찬양대회에서
함께 찬양하는 디모데 구역

이번 연수를 통해 저는 새로운 내시경 시술 기술을 보고 배우며 이에 대한 학문적 결과도 관찰하면서, 앞으로 제가 돌아가서 만날 환자들을 위한 좋은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나라와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미국 사회를 경험하면서 좀 더 넓은 마음과 시각을 갖추려 노력하며,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좋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귀한 선배들을 만나 한층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를 허락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응원해주시는 병원장님과 학장님, 소화기내과 교수님들과 소화기내시경실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정경원 교수 | 소화기내과

+ 전문진료분야

치료 내시경(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칼라지아(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복음병원
명의를
만나다

 구유진 기자 · 고신언론사

류마티스내과 김근태 교수 치료에 최선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심장내과나 호흡기내과와 비교해 류마티스내과 하면 생소하지만, 류마티스관절염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류마티스라는 용어는 서양의 류마티즘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외래어로 관절과 관절 주변의 연골, 뼈, 근육, 인대 등에 발생하는 모든 병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인들은 ‘류마’라고 하는 액체가 사람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그 흐름이 멈추는 곳에서 붓고 병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이로부터 ‘류마티즘’이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류마’라는 물질이 관절에서 고이게 되면 관절염이 생기고, 심장에 고이면 심장병이 생긴다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개념이 많이 확대됐고, 근골격계에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서 류마티즘이라고 합니다. 류마티스질환 안에는 자가 면역 질환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렵고 생소한, 희귀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가 필요해 류마티스내과가 탄생했습니다. 류마티스질환에는 100여 가지가 있는데, 퇴행성 질환이나 통풍처럼 결절로 생기는 것도 포함합니다. 대부분 많은 수가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 자가면역 질환들은 면역 시스템이 고장 나서 생기는 것이어서 더 무서운 이유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쁜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그 균을 잡아 몸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고장 나서 나쁜 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스스로 마구 공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류마티스관절염은 관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을 관절이라 하고, 사이에는 연골이 있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관절을 활막이라는 얇은 막이 싸고 있는데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계통 이상으로 활막이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염증에 의해 두꺼워진 활막이 관절을 파괴하는 질환입니다.”

“면역계통 이상은 관절뿐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폐, 심장, 혈관, 신장, 신경 등 전신을 침범하는 전신성 질환이죠. 더불어 합병증 때문에 환자 삶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요. 흔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고 정형외과를 다니면서 치료하지만, 면역 시스템이 고장 났기 때문에 진통 소염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합병증 치료는 전혀 안 되죠. 우리나라 환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퇴행성관절염과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는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그저 진통 소염제를 쓰면서 질병 진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결국 더 큰 아픔으로 온다는 것이죠. 내과를 찾아오는 환자 대부분은 통증 때문입니다.

다양한 증상 중에서도 통증은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진통 소염제 복용은 그저 일시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할 뿐이고 아무리 치료해도 검사로 인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 근본적인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김근태 교수가 류마티스내과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역시나 질병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의 좋아진 모습을 볼 때입니다.

“류마티스내과가 공부해야 하는 것이 정말 많아요. 처음 전공과를 결정해야 할 당시, 저는 얕은 지식을 가진 상태였는데, 환자를 계속 만나면서 제대로 해보고 싶었죠. 면역 시스템을 다루다 보니 학문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류마티스내과를 찾는 환자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거쳐 고생 끝에 오신 거라서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류마티스내과 의사로서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류마티스내과가 일반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생각되는 과는 아니고, 어디에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증상이 생기면 류마티스내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산 지역에는 개원하신 류마티스내과 선생님들이 곳곳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정형외과든 가정의학과든 일반 외과를 가더라도 어떤 증상이 금방 해결되지 않고 지속한다면, 관절뿐만 아니라 피부 발진, 입 마름, 눈 이물감 등이 심하면 면역 시스템 고장을 생각해봐야 해요. 면역 시스템은 여러 증상의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환자마다 같은 질병의 진단이라도 치료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명이가 아니라서 명의의 모습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김근태 교수는 “조금 더 환자분들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조금 더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도록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세를 시종일관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람이죠.” 

복음병원
명의를
만나다



이비인후 감상선 두경부외과 이형신 교수

실력과 인격, 신앙이 검비된 의사! 암을 치료한다



“말하고 먹고 숨 쉬는 공간에 생기는 각종 암과 종양을 진단하고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그 외에 침샘, 음성 수술도 같이하고 있고요. 사람이 말하고 먹고 숨 쉬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 몸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호흡하지 못하면 안 되고 먹는 즐거움이나 말하는 것도 큰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이 저에게는 의미 있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환자 삶의 질과 생명과도 관련 있지만, 생존했을 때는 그 암을 극복하고 나서 결국 잘 먹고, 숨은 잘 쉬고, 말은 잘하는지,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치료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암을 충분히 절제하면서도 말하고 먹고 숨 쉬는 기능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계속 공부하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비인후과 이형신 교수는 귀, 코, 목을 다루는 진료과에서 목에 생기는 각종 종양, 즉 두경부(머리와 목 부위) 종양, 그 중 갑상선암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후두암과 구강암, 비인두암도 전문진료 분야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식도로 넘어가는 사이 공간과 숨을 쉬어서 기도로 넘어가는 사이 공간에 생기는 암들 대부분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환자들이 가장 많고 나머지를 두경부암이라고 하는데 그 두경부암 중에서 최근 들어 제일 많은 건, 편도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도선에 암이 잘 생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죠. 구강암 중에서는 설암이 많은 편입니다. 혀에 생기는 암인데, 혀를 절단해서 암세포를 제거한 후 다리에서 살을 떼어 혀를 재건합니다. 성형외과 선생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죠.”

이형신 교수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된 이유는 수술적인 측면과 내과적 측면 양쪽 모두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라고 합니

다. 또 다른 이유는 좋은 스승에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이끌었다는 이유도 있었죠.

“제가 고신대복음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해서 들어왔을 당시 부도가 났어요.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하셨고,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라왔고, 중고등부 때도 교회 장로님께서 늘 우리 복음병원을 위해 대표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커왔기에 기관에 대한 애정도 있었어요.

제가 이 기관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이강대 교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어려운 병원 환경에서 주변의 다른 대학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으셨음에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셨어요.”

이비인후과 수업도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형신 교수를 지금의 길로 이끌었던 동력은 좋은 스승 이강대 교수 때문이었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사를 키우고 싶었던 스승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이형신 교수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왜 목을 전문진료 분야로 택했냐면, 목은 암을 봐야 하거든요. 물론 코암도 있지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요즘은 중소병원에서도 수술을 많이 하지만 진행이 많이 된 암이라든지 또 후두암 구강암은 2차 병원에서도 수술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수로서 일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분야가 종양이고, 또 저는 암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환자의 숨길이 막히면 위험해지고 응급 상황 발생이 빈번하니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두경부는 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형신 교수는 그만큼의 보람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설암으로 병원에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당시 은퇴하시고 70대 중반이셨는데 설암 4기로 굉장히 심각했죠. 고령이시고 수술 후 회복 과정도 쉽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혀 재건 수술받고 5년쯤 지나 다른 병환으로 돌아가셨어요.

4기 설암 생존율이 높지 않았는데, 수술 후 TV 의학 프로그램에

서 치료가 잘 된 환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계시던 그 목사님께서 정장을 차려입으시곤, 밥도 잘 먹고 말도 잘하고 잘 지내고 있다면서 할렐루야를 외치셨죠. 외래 진료를 오셔서 이렇게 좋아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어눌하지만 찬송가 부르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이토록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소중한 하면서도 두려운 일임을 이형신 교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앞둔 같은 처지의 환우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이형신 교수는 ‘환자 삶의 질을 생각하고 꼼꼼하게 수술하는 의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신앙생활을 하는 그에게 신앙의 힘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 자신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환자에 대한 요인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는 부족한 감량이지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 전에 기도하는 것이 좀 부끄러웠어요. 저의 수술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 하고요.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시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생겨서라기보다 고신대복음병원, 이 기관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들어주셔야지 올바른 판단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수술에 임하고 또 실제로 그렇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명의의 모습은 일단 좋은 의사, 좋은 의사는 실력과 인격, 신앙이 겸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에게 제가 신앙을 가진 의사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실력과 인격과 신앙이 좀 겸비돼서 같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환자와 병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 모습, 닮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일터를 사랑하고, 환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폈던 초대병원장故 장기려 박사님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습니다! 칭찬 릴레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바랍니다.

신장내과 **신호식** 교수님 추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성도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성도
 환자 앞에서 사랑받는 의사
 동료 앞에서 사랑받는 교수
 간담도취장외과 · 이식외과 **문형환** 교수님을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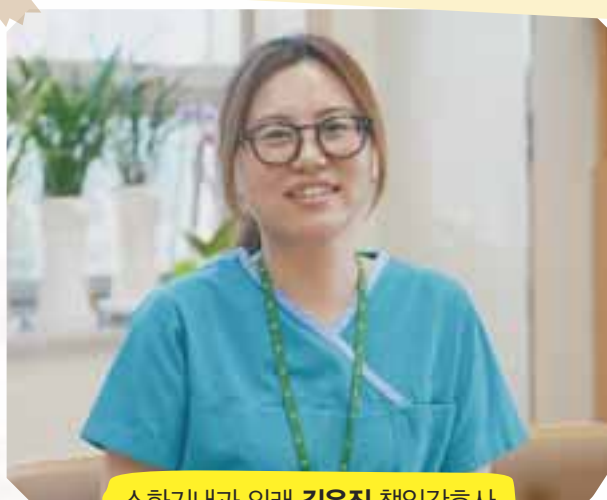


간담도취장외과 · 이식외과 **문형환** 교수

평소 닮고 싶은 롤 모델로 생각하던 신호식 교수님께 칭찬을 받아서 기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믿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을 함께 돌보고 걱정하며 좋은 의견을 주시는 간담도취장외과 · 이식외과 신동훈, 최영일, 조지훈 교수님, PA 김수진, 남수정, 이병은, 전재영 선생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내시경검사실 **김경미** 수간호사 선생님 추천

내시경실과 늘 함께 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외래 **김유진**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2012년부터 박선자 교수님과 함께 소화기 환자들을 성심 성의껏 돌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공휴일에도 출근해서 서류를 챙기며, 혹시나 검사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함께 일하는 교수님들과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어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합니다. 환자 눈높이에 맞춰 안정되고 편안하게 설명하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병원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려 노력합니다. 힘들지만 즐겁게 함께 하는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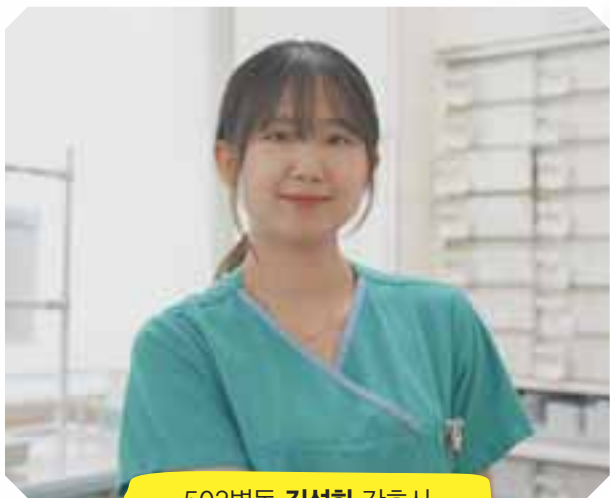


소화기내과 외래 **김유진** 책임간호사

부족한 저를 추천해주신 내시경검사실 김경미 수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소화기내과 외래에 일하게 되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스스로의 노력이나 열정만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오만한 모습의 제가 있었습니다. 소화기내과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내시경검사실 수선생님과 내시경실 식구들의 지지, 그리고 수납창구, 입원수속, 통합검사 예약, 503 병동 선생님들과 외래 과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단 하루도 무사히 지나갈 수 없었을 것임을 압니다. 진료보고 가시면서 오늘도 수고한다, 고맙다 이야기 해주시는 환자와 보호자 분들께 늘 힘을 얻습니다. 소화기내과에 일하는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과 환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32병동 김예지 선생님 추천

환자들에게 낯선 시술이나 검사 등을 환자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며, 늘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김선화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때로는 화나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늘 당당하고 힘차게 처치 및 간호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힘나고 웃음이 납니다.



503병동 **김선화** 간호사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계속 배우고 있는 단계에 칭찬릴레이에 선정된다는게 많이 부끄럽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언제나 환자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간호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부하고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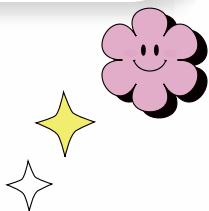
원무부 최은정 주임님 추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의미있게 만들어주시는 완화의학과 **정원길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마지막 앞에선 환자와 가족들에게 두려움을 마주하고 아름다운 의미 있는 마무리를 위해 도와주시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로와 격려의 기도를 해주시는 교수님은 복음병원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건우의 마지막도 교수님의 따뜻한 돌봄과 위로로 큰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하고 자랑합니다.



완화의학과 **정원길** 교수

제가 지금까지 환자와 보호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 은혜이고, 둘째는 가족들의 지지이며, 셋째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헌신입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연명의료 그리고 완화의학과 외래를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To be continued 겨울호에서 계속됩니다 💕

2024년 6월 ~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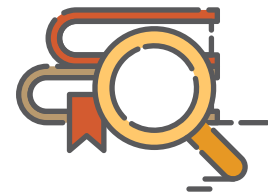
내원객이 칭찬해주신 **우리 병원 친절직원**

- 6월1주차** 마미경 책임간호사(간내과) 509병동
- 6월2주차** 성선희 간호사(503병동) | 손찬희 간호조무사주임(511병동) | 손우신 간호사(신경계중환자실)
- 6월3주차** 강민경 간호사(504병동) | 최수빈 간호사(508병동) | 노현준 의료기사(채혈실)
홍대범 간호조무보조사주임(510병동)
- 6월4주차** 계여곤 교수(응급의학과) | 한솔 간호사(508병동)
- 7월1주차** 조하은 간호사(504병동) | 정세영 간호사(PRN) | 손성욱 의료기사(방사선종양치료실)
- 7월2주차** 박선자 교수(소화기내과) | 김경미 계장(내시경검사실) | 송은지 간호사(504병동)
최수빈 간호사(508병동) | 김도희 간호사(509병동)
- 7월3주차** 이호섭 교수(혈액종양내과) | 조혜수 간호사(352병동)
손찬희 간호조무사주임(511병동) 주사실
- 7월4주차** 정원길 교수(완화의학과) | 525병동(호스피스) | 신현정 책임간호사(511병동)
이송주 간호사(주사실) | 강나래 간호사(362병동)
- 7월5주차** 박진형 교수(성형외과) | 최미경 책임간호사(504병동) | 김영순(미화부) 보안팀
- 8월1주차** 김구상 교수(유방외과) | 강나래 간호사(362병동) | 김은희 간호조무사주임(510병동)
김민하 의료기사(재활치료실)
- 8월2주차** 김혜경 수간호사(351병동) | 김효진 책임간호사(간담체내과) | 홍해빈 간호사(525병동)
김기록 책임간호사(510병동)
- 8월3주차** 정원길 교수(완화의학과) | 가정형호스피스완화의료 김찬희 간호사(525병동)
김기록 책임간호사(510병동) | 김영선 책임간호사(351병동)
- 8월4주차** 김희규 교수님(알레르기내과) | 김종옥 간호사(위장관외과)
김승신 간호사(351병동)



최근 3개월 병원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고객님의 빠른 쾌유와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 한마디가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원목실 추천도서



하나님의 DNA

최상훈 | 규장 | 2024.07.30.

책소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놀라운 능력과 권세 또한 회복시켜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겼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정체성을 도장처럼 새겨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정렬할 때 하나님의 성품, 능력, 권세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DNA를 발취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저자소개 | 최상훈

성전에 머물러 오래 기도하기 좋아한 사무엘과 같은 만년 기도 소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았다는 그는 기도에 대한 태도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 무한히 앞드리는 천진한 어린아이이자 겸손하고 깊은 기도의 사역자이다.

그는 소심하고 부끄러워하던 소년에서 결정적인 시기에 깊은 성령을 체험한 후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시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고전 6:17)이라는 '영의 정체성'이 깊이 각인(刻印)되었다. 그 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만 있겠다고 결심하여 선교사로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7년, 알래스카에서 7년 그리고 벤치라 이민 목회를 거쳐 지금의 화양교회에 부임하기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준 '영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증거해준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Declare N Align), 하나님의 정체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에 결부시켜 활성화 시키기만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정렬되지만 하면, 하나님의 성품, 능력, 권세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풀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속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의 정체성을 활성화시키는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선교사로 사역했으며 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화양감리교회 담임 목사이며 사인미니스트리 대표로 있다. 화양교회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사역으로만 청년이 부흥하는 교회, 기도와 영의 정체성 목회를 통해 본질을 붙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신애라 저 | 신애라 역 | 규장 | 2024.05.08.

책소개

'나는 누구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

배우 신애라의 진솔한 삶과 신앙, 첫 번째 이야기

그녀의 삶에 남긴 하나님의 흔적

배우이자 방송인, 같은 배우의 길을 걷는 남편과 함께 삼 남매를 기른 신애라 집사의 간증이 담긴 첫 번째 에세이다. 그녀의 부드럽고 잔잔하지만 강한 경탄,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는 마침내 인생이 믿음으로 해석된 자가 전하는 소망과 기쁨의 찬양처럼 들린다. 삶의 크고 작은 파도가 지난 흔적을 더듬으며 쓴 글은, 그녀가 하나님의 귀에 속삭이듯 고백하는 찐사랑의 이야기 같기도 하다. 그 사랑이 마땅히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꽃혀, 그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버렸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보육원 봉사를 따라다니던 아들은 장성한 청년이 되었고, 가슴으로 낳은 두 딸은 그녀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다. 또한 컴패션을 통해 52명 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며, 더 많은 아이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을 돕는 실제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저자소개 | 신애라

배우, 방송인이자 아내 그리고 삼 남매의 엄마인 신애라의 잔잔하지만 강한 경탄,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는 믿음, 소망, 사랑의 찬양처럼 들린다. 삶의 흔적을 더듬으며 담담히 써 내려간 글은 그녀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사랑의 고백이다. 그 고백이 마땅히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한 그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수많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이름처럼 사랑(愛)을 널리 펼치는(羅) 그녀는 이 책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 전반기 보고서'라고 한다.

중앙대 연극학과 재학 중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 30년간 많은 방송에 출연했으며, 45세에 미국으로 유학, 기독교 상담학과 가정사역을 공부했다. 2020년부터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의 진행을 맡고 있으며 사단법인 야나(yana)와 한국컴패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간담췌내과
조수민 교수

+ 전문진료분야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대장항문외과
문예진 교수

+ 전문진료분야

대장항문외과 일반진료



대장항문외과
이승훈 교수

+ 전문진료분야

대장, 탈장, 복강경 로봇수술

해외연수 후 진료재개



류마티스내과
김근태 교수

+ 전문진료분야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건선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통풍, 골관절염, 섬유근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초음파클리닉

해외연수 후 진료재개



신장내과
길송이 교수

+ 전문진료분야

신장질환



재활의학과
김기찬 교수

+ 전문진료분야

뇌졸중, 노인재활, 골다공증, 암재활

해외연수 후 진료재개

Focus View

‘통증, 참지 말고 표현하세요’ 통증캠페인 개최



완화의료센터가 지난 5월 23일 장기려기념암센터 1층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을 대상으로 통증캠페인을 개최했다. “통증, 참지 말고 표현하세요!”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통증캠페인은 OX 퀴즈를 통해 통증 관리 정보를 나누고, 통증 안내 리플렛과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한편, 고신대복음병원은 보건복지부 및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로부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산·울산·경남지역 최초로 소아청소년완화의료 서비스를 운영한다. 소아청소년과 공섭김 교수는 “심각한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만 2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인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돌봄으로써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신대복음병원은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등 각종 호스피스 사업을 통해 완화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2024.06.03.]

김해 금병초에서 다문화가정 무료 주말진료 봉사실시



고신대복음병원은 6월 1일(토) 김해 진영읍 금병초등학교에서 2024년도 제 3차 다문화가정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에는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를 비롯해 의료진 4명이 참여했고 간호사와 고신의대 간호학과 학생 20명이 동참하여 알레르기 클리닉 어린이, 기침 천식 클리닉, 학부모 물리치료 클리닉, 학부모 여성암 초음파 클리닉을 진행했다. 진료를 찾은 다문화 60여 가정에게 진료와 약 처방이 이뤄졌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해 8월 경남김해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보험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최중순 병원장은 “비상진료체제가 유지되는 어수선한 시기이지만 주말을 반납하고 의료진들이 다문화가정을 섬겨주셨다”면서 “초대 병원장 장기려 박사님의 정신을 계승하여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더 많은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의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4.]

신임 병원집행부, 미래비전 워크숍 개최 병원의 중장기발전 논의해



고신대복음병원은 최중순 병원장 및 보직교수들을 중심으로 6월 5일(수) 미래비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임 병원집행부가 병원의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태화 진료부원장, 옥철호 연구부원장, 서경원 기획조정실장, 이호섭 진료부장, 이운형 적정진료관리실장, 김재현 진료지원부장, 이형신 교육연구부장, 이형석 대외협력실장은 병원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에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각 주제 발표에 대한 허심탄화한 논의도 펼쳐졌다. 최중순 병원장은 “의정 갈등 가운데서도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의료진들의 진정성이 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병원인 복음병원의 100주년을 준비하는 원년이 되자”고 말했다.

[2024.06.07.]

Focus View

호흡기내과 김태윤 교수, 대한폐암학회 우수학술논문상 수상



호흡기내과 김태윤 교수가 대한폐암학회로부터 우수학술논문상의 주인공이 됐다. 김태윤 교수는 지난 6월 14일 경주청맥컨벤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대한폐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학술논문상을 수상했다. 김태윤 교수는 "표적 항암제 감수성 폐암환자에서 차세대 맞춤형 치료의 최신연구 분석"은 제목의 논문으로 우수학술논문상의 영예를 얻었다. 김태윤 교수는 고신의대 졸업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내과 전공의와 군의관 시절에도 국제학술 저널에 주저자로 활발히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현재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과 복음병원 호흡기내과 조교수로 재직중에 있으며, 대한폐암학회를 비롯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 유럽호흡기학회등 국내외 학회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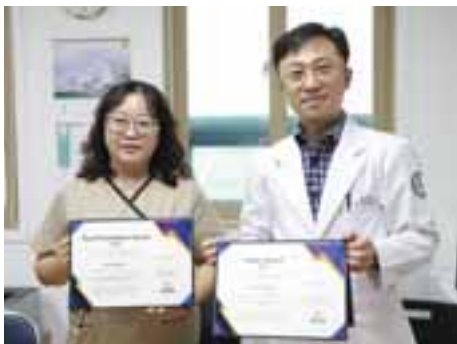
개원 73주년 기념식 개최,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사랑받는 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개원 73주년(개원기념일 1951년 6월 21일)을 맞아 6월 20일 기념예배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고려학원 유연수 이사장, 이상일 이사 그리고 최중순 병원장을 비롯해 내·외빈 및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예배 중 특송은 보직교수 10명이 화음을 넣은 '은혜'라는 복음송으로 개원기념식에서 화합의 의미 더했다. 유 이사장은 “복음병원의 설립멤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한 분들이었기에 천막병원의 기적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여 미래로 나아가자는”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중순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재진입한 저력을 바탕으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병원까지 이어나가자”고 강조하며 교직원들에게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병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병원이 되자”고 말했다. 이날 고신대병원 진료·연구 우수 의료진과 모범 교직원 대한 이사장, 병원장 표창수여식 및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2024.06.20.]

영양집중지원팀,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서 최우수 구연상 수상해



영양집중지원팀(NST)이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구연상과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이지영 영양집중지원팀 전담간호사는 간담체내과 서광일 교수와 연구한 “중환자에서 제한된 칼로리 지원이 전체 칼로리 지원보다 임상 결과를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인가?” 질문의 근거지침 마련을 위한 메타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는 병원 내 영양집중지원의 질 향상을 통해 합병증과 유병률을 낮춤으로써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양집중지원팀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양집중지원팀은 영양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전담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돼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뤄지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암·소아·비만대사 환자들에게 맞춤형 영양지원 방법을 제시, 빠른 회복과 치료를 돕는다. 또한 매년 자체적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해 영양집중지원팀이 없는 지역 1·2차 의료기관의 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최신 치료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2024.06.24.]

감염병 예방부터 AI의료 글로벌 리더까지 왕성한 대외 행보펼쳐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지난 6월 26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4 한-아세안 보건 및 복지 협력 증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AI, IoT 기반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강화'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옥철호 연구부원장이 진행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지역사회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실시간 안심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 개발 및 적용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옥철호 부원장은 "우리나라를 넘어 아세안 지역에서도 AI, IoT 기반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AI 시대에 지역요를 대표하는 리더 병원이 되기 위해 더 연구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07.04.]

고신대학교복음병원 · 중부소방서, 합동소방훈련 실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7월 5일 오전 부산중부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이번 훈련은 5동 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뒤 교직원과 환자, 보호자가 화재발견과 화재전파, 초기 소화, 대피유도, 대피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화재를 진압하는 실전 훈련으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화재 발생사실 전파 ▲자위소방대의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 진화 ▲피난구조설비를 활용한 피난·대피 훈련 · 자위소방대와 소방대원 화재진압·인명구조 합동훈련 ▲소방대의 병원 건물 구조 파악과 인명구조 모의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최중순 병원장은 "재난 상황을 가정한 가상훈련으로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합동훈련과 더불어 자체 훈련과 교육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환자와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8.]

정형외과 김지연 교수, 세계한인 과학기술인대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정형외과 김지연 교수가 7월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화관에서 열린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 행사에서 제34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1991년에 처음 제정된 상으로, 전년도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학회별로 가장 우수한 논문을 한 편씩 추천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지연 교수는 '족부족관절에 발생한 연부조직 육종에서 진단이 지연되었을 때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로 우수논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연구는 족부족관절에 생긴 육종, 즉 암세포 조직의 발견시기에 따른 예후와 생존율에 관한 연구로, 족부족관절 부위에 연부조직 종양이 생긴 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발병기간에 관계 없이 의료진이 적극적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지연 교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저자로 총 6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그 중 2편은 SCI급 논문에 게재하며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7.15.]

Focus View

고신대복음병원, 아프리카 선교후원을 위한 바자회 개최



장기려기념의료선교센터(센터장 이승현) 주관으로 7월 16일, 17일 이틀간 병원 입구 주차구역에 마련된 바자회 존에서 '아프리카 선교기금을 위한 바자회'가 개최됐다. 이번 바자회는 해외의료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바자회로 얻은 수익금은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외의료봉사에 사용됐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각 부서의 교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떡볶이, 파전, 국수, 햄버거,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가 판매됐다. 교직원들은 한바음으로 의료선교를 후원하며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며 선교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매년 의료선교팀을 운영하며 국내외 의료나눔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교직원 및 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으로 구성된 57명의 인원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12일간의 해외의료선교활동을 진행한다.

[2024.07.17.]

고신대복음병원, 고신대와 함께 학교법인고려학원 산하기관을 위한 특별기도회 가져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고신대학교와 함께 7월 20일 가덕도 천성교회에서 학교법인 고려학원 산하기관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도회는 고신대 이정기 총장과 최중순 고신대복음병원 병원장이 참석했다. 복음병원과 고신대학교 보직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기도회는 고신대학교 경건훈련원(무척산기도원)에서 산상 기도회 준비했었지만 장마기간으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로 장소가 가덕도 천성교회로 옮겨 진행됐다. 이날 김영대 원목실장은 "예수님의 통치와 공급하심, 인도와 위로하심을 누리는 양떼가 우리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을 전했다. 기도회 후 참석자들은 강서구 에코델타센터 전망대로 이동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EDC 헬스클러스터 개발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병원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최중순 병원장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독교관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경영에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4.07.22.]

고신대복음병원-신라대학교와 '미래 웰라이프스쿨 협약' 체결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신라대학교와 미래 웰라이프 스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미래 웰라이프 스쿨 협약은 양기관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인적·기술적 자원 공유 협력 △지역 의료 산업 분야 인재 양성 △의료 진료 및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체계 구축 △중환자간담진 및 병원 진료에 관련 혜택 제공 △공동 사업 필요 분야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중순 병원장은 "보건의료와 노인복지 부문에 특성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신라대학교가 고신대복음병원과 함께 지역 의료 체계가 발전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라대 허남식 총장은 "보건복지 분야를 특성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라대학교와 고신대병원의 상호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2024.07.24.]

마취적정성 평가 100점 만점으로 1등급 획득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23년 3차 마취적정성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얻어 1등급을 획득했다. 2023년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등 대상으로 평가된 이번 3차 마취적정성 평가에서 고신대병원은 1등급 기준인 95점을 넘어서 종합점수 100점을 획득해 종합점수 전체평균인 89.7점을 크게 앞섰다. 지난 1, 2차 마취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고신대병원은 이로서 3회연속 마취적정성 평가 1등급을 기록하게 됐다. 심사평가원은 마취 의료서비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 안전관리 기반 마련 및 의료 질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마취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2차 평가부터는 중소 병원의 마취 안전 관리를 위해 평가 대상을 전문병원(병원급)까지 확대했다. 최중순 병원장은 "만점 마취적정성 1등급을 획득함으로 수술전문병원으로서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면서 "장기려 박사님으로부터 이어져온 수술 명가의 자부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31.]

인공지능 방역로봇 도입해 안전한 병원 환경 구축



고신대복음병원이 각종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방역로봇을 도입했다. 인공지능(AI) 방역로봇은 라이다(Lidar)와 카메라 센서 기반의 안전한 자율 주행, 자동충전 등의 기술을 적용해 로봇이 스스로 외래 구역을 대상으로 스스로 이동하며 방역활동을 수행한다. AI방역로봇은 최첨단 센서를 이용하여 자율주행하며 공기 중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제거하며, 기존의 소독액을 분사하던 살균시스템과 달리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바이러스를 99.9%이상 살균하는 친환경 플라즈마 방식을 탑재해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도 24시간 방역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하단에 탑재된 UVC LED를 통해 비말 등으로 바닥에 낙하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동시에 방역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생활 유해가스 등에 대한 공기 청정 기능도 제공한다. 최중순 병원장은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도약하고자 병원 방문객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방역로봇을 도입하게 되었다"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환자께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8.01.]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 '커피차 이벤트' 진행해



폭염이 늦여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이 8월 19일(월) 내원객을 대상으로 아이스키피, 자몽에이드, 아이스티 음료 3종과 츄러스 디저트를 제공하는 '커피차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5월부터 시작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를 담당하는 공성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커피차 이벤트"를 통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이용방법과 제공서비스를 소개하고, 이벤트 공간에서 내원객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관한 직접 묻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고신대복음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소아청소년(완화의료) 외래진료(매주 월요일 오후) 또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사무실(051-990-3755)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24.08.20.]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Jang Gee-Ryeo Memorial Center for Medical Mission, JMCM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의료를 통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부속 기관으로, 의료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생을 사랑과 봉사, 청빈한 삶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헌신하신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님(1911~1995)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 의사이자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의료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2024년 활동

1.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봉사

2024.06.01.(토), 금병초등학교(김해)

2024.04.14.(토), 동광초등학교(김해)

2024.03.31.(토), 합성초등학교(김해)

2. 복음전파, 전도사역을 위한 지역교회와의 협력

2024.04.27.(토), 가야 성안교회(32명 참여, 143명 진료)

2024.03.09.(토), 현동 살롬교회(18명 참여, 200명 진료)

2023.12.30.(토), 제4영도교회(35명 참여, 81명 진료)

3. 해외의료봉사 지원

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에스와티니(에스와티니 기독교대학)

기간: 2024.08.10.(토) ~ 2024.08.21.(수)

▶ 의료봉사를 위한 약품지원, 문화사역 및 어린이사역 지원

▶ 선교후원을 위한 바자회

- 일자: 2024.07.16.(화)~2024.07.17.(수)

- 협력: 감천제일교회, 감천중앙교회



4. 의료선교훈련원

2024.03.21. ~ 2024.05.30. (11주, 매주 목요일 저녁), 예배실(1동 3층)

주	일정	강사	강의제목
1주	3월 21일	홍영화 선교사(KPM 본부장)	KPM 권역별 선교전략 ①: KPM 역사와 비전
2주	3월 28일	민형래 선교사(CCC 아가페, P국)	일터 선교사 / 사막에서도 선교하기
3주	4월 4일	김은경 선교사(네팔)	일터 선교사/ 네팔 선교 보고
4주	4월 11일	성훈 원장(벤엘의료선교회)	일터 선교사 / 고난 속에서 소명을 부여잡기
5주	4월 18일	신성호 선교사 (KPM 훈련원장)	KPM 권역별 선교전략 ②:타문화 이해와 선교
6주	4월 25일	이영선 과장 (CP선교회, CCC 아가페)	일터 선교사 / 병원 내 소그룹 운동의 중요성
7주	5월 2일	우상민 원장 (부산 살롬치과)	일터 선교사 / 바빠서 선교하기
8주	5월 9일	정충호 선교사 (KPM 사역지원국장)	KPM 권역별 선교전략 ③:선교와 기도(영적전쟁)
9주	5월 16일	김영대 목사 (고신대복음병원 원목실장)	아프리카 선교
10주	5월 23일	옥철호 교수 (고신대복음병원 호흡기내과)	스마트 의료/스마트 선교
11주	5월 30일	최우성 선교사 (KPM 연구국장)	KPM 권역별 선교전략 ④:하나님의 비전

5. 기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 총회세계선교부(KPM) 간 선교협력 간담회

일시: 2024.02.01.(목)

장소: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장기려기념암센터(6동) 7층 1회의실



선교협력 간담회
(2024.02.01.)



의료선교훈련원
(2024.03.21. ~ 2024.05.30.)



해외의료봉사(남아프리카공화국, 에스와티니)
(2024.08.10. ~ 2024.08.21.)



■ 참여 · 협력 · 후원 문의: 051) 990-5775



외래진료시간표

2024년 9월 기준

※ 대표전화 ☎990-6114, 991-0675, 응급의료센터 ☎990-6119
※ 진료문의는 ☎990-6114, 진료예약은 990-69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의분야
가정의학과	최종순	화,금	월,목	비타민 고용량요법, 암의 보완통합요법, 특이중상클리닉(자율신경 실조증), 만성피로클리닉, 노인의학
	공은희	월,수,목	수	비만, 임상영양, 금연, 기능의학
	강지훈	화,금	화,금	근골격계 통증클리닉, 자율신경주사, 만성두통, 암 경험자 평생 건강관리, 성인예방 접종, 금연클리닉, 유전체기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클리닉, 노인의학
간담도췌장외과· 이식외과	신동훈	월,목	수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최영일	화,금	화	간이식, 간담도, 혈관, 간담췌클리닉
	문형환	수	수,목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간담체내과	조지훈	수	화,금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이상욱	월,수	월,수	간, 담도, 췌장 질환(간암, 간경화증, 급, 만성 간염)
	서광일	해외연수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감염내과	박현준	화,목,금	목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정욱	월,수,금	목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조수민	화,목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내분비내과	김부경	화	월,수	감염내과 일반진료
	박성우	월,수,목	화	비만,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박태훈	화,금	월,목,금	당뇨병
대장항문외과	김봉천	월,목	화	내분비(당뇨)질환
	안병권	화,목		내분비내과질환
	이승현	월,수	월,수	대장암, 직장암, 대장직장클리닉
두경부갑상선 내분비외과	이승훈	금	화,금	대장항문클리닉
	문예진		목	대장, 탈장, 복강경 로봇수술
	이지은	월,화	화,수	대장항문외과 일반진료
류마티스내과	양송이	해외연수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갑상선최소절개수술
	김구상	수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부갑상선질환
	김근태	수,금	월,화	로봇갑상선수술(경구, 약외), 갑상선암, 고주파열치료, 조직검사, 세침검사, 고주파열치료클리닉
마취통증의학과	김윤경	월,목	수,금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초음파 클리닉
	류시정	월,목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 초음파클리닉
	김두식	화	목	통증관리
방사선종양학과	강동희	금	화,금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김지욱	수	수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부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박경란	월,화	수,목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비뇨의학과	마선영	수,금	월,수	유방암, 간담췌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최지훈	화,수	화,목	유방암, 부인과종양, 하부소화기종양
	유제상	월,금	월,화,금	폐암, 흉선종, 식도암,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산부인과	류현열	월,수		두경부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최성	화,목	월,목	요로종양, 전립선, 신장이식, 종양클리닉
	김택상	월,수	수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전립선클리닉, 요실금클리닉
성형외과	강수환	화,목	화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서원태	금	화	로봇수술, 결석
	김원규	화,금	금	비뇨기계 일반질환
소아청소년과	이태화	월,수,목	월	부인암, 종양,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단일공수술
	오영림	월,목	목	부인암, 내시경수술, 부인종양
	윤항구	화,금		고위험 임신, 조산
소화기내과	강태경	수,목		모체태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산부인과질환 로봇수술센터
	김은택	수	수	일반 부인과 질환, 부인과 내분비학
	박진형	월	월	부인질환(근종, 난소종양, 자궁내막증, 자궁탈출증), 부인종양, 부인암, 부인암 유전상담, 폐경, 로봇수술, 내시경수술(부인암 분과전문의)
신경과	이형석	수,금	수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김홍일	해외연수		당뇨발, 욕창, 피부암, 눈성형, 두경부재건, 소아성형
	김윤수	화	화,목	수부질환, 수부외상, 선천기형, 두개안면외상, 피부종양, 흉터성형
신경외과	홍유진	목	화	유방재건 및 유방성형, 체형성형, 미용/흉터 성형, 피부종양, 안면골절
	정유진	수,금	수,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이정현	월,수,목	월,수,목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소아청소년과	연규민	금	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공성김	월,목,금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정민영	화,목	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소화기내과	최소윤	화,금	수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박선자	월,수	월,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박무인	월,목,금	수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신경과	문원	화,목	화,목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김성은	화	수,목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김재현	수	월,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신경외과	정경원	해외연수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최윤정	수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손민영	목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신경과	박지혜		수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이명훈		목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유봉구	월,화,수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신경외과	김명국	수,목	월,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김민정	금	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이진형	화,금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신경외과	전병준	목	월,수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조혁래	월,수	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박정현	화,목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신경외과	박민철	화	화,목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김도연	월	월,수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심승우	수,금	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외래진료시간표

2024년 9월 기준

※ 대표전화 ☎990-6114, 991-0675, 응급의료센터 ☎990-6119

※ 진료문의는 ☎990-6114,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신장내과	임 학	월, 수, 목	수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 혈액형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 연 순	화, 목	화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신 호 식	월, 수	월, 수, 목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김 예 나	화, 금	월, 화	신장질환
	길 송 이		금	신장질환
심장내과	차 태 준	월, 화, 금	월, 화, 목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 세포심장학
	허 정 호	월, 수, 목	화	심혈관 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흉통클리닉, 고혈압클리닉
	임 성 일	월, 수, 목	수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김 봉 준	해외연수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
	김 수 진	화, 금	수	순환기,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여성심장
심장혈관흉부외과	박 성 달	월, 목		일반흉부, 폐암, 종격동종양
	김 종 인	화	월, 화	일반흉부, 폐기종, 기흉,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흉부외상
	조 성 호	수	화, 수	성인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이 해 영	월, 목	월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정맥질환, 흉부외상, 성인심장질환, 체외막산소화장치
	고 택 용	금	수, 목	일반흉부, 폐암, 종격동종양
	문 정 민	화, 수	목	투석로, 말초혈관 질환, 하지정맥류
	이 상 호		금	일반흉부, 기흉, 흉부외상
	이 상 준	목	월, 화	망막, 포도막, 백내장, 안외상, 눈물길 유리체망막클리닉, 포도막염클리닉
안과	이 승 욱	월, 수	목	녹내장, 백내장, 각결막질환
	김 창 주	금	수, 금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안종양, 안외상, 눈물길, 근시
	임 준 현	화, 금	수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알레르기내과	김 희 규	월, 수, 목	월, 목	만성/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곤충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면역결핍질환
	최 길 순	해외연수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오 지 현	화, 금	화, 수	만성기침,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등
완화의학과	정 원 길	월, 화, 수, 목		호스피스 완화의료
	공 섬 김		월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위장관외과	윤 기 영	월, 목	월	위장,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서 경 원	화, 수	화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식도역류질환), 대사비만수술, 탈장
	김 기 현	금	수, 금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대사비만수술
	김 윤 흥		목	복강경, 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대사비만수술
유방외과	정 성 의	화, 목	화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Young age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김 구 상	월	월, 목	로봇유방암수술, 유전성 유방암, 인체정위생검, 유방암 경험자 클리닉
	최 진 혁	수, 금	수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종양성형클리닉
응급외과	정 주 원		화	응급외과
	김 영 식		수	응급외과
이비인후갑상선 두경부외과	이 강 대	월, 목, 금		갑상선 수술, 부갑상선 수술, 신경모니터링 수술
	이 환 호	목	월, 수	중이염, 어지럼증, 이명, 난청, 인공와우이식
	권 재 환	국내연수		중이수술, 내성, 이명, 어지럼증, 귀의 염증, 사할성 중이염, 고막질환, 소아 귀 질환,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이개질환, 귓볼 헬로이드, 중이 전중증 비파괴: 축농증, 비성형, 안면재건, 안와골절, 비골골절, 코피, 산재 특별 진찰
	이 형 신	월, 수	화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성대 보톡스, 성대 필러
	김 주 연	화	월, 목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무호흡 증, 코성형 클리닉, 코피
	김 영 준	화	수, 금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인후통, 편도, 성대, 혀마름, 임파선 비대, 목의 혹, 입술
	김 기 찬	월, 화	목	뇌졸중, 노인재활, 골다공증, 암재활
재활의학과	정 호 중	수, 금	월, 화	척수손상 재활, 경직치료 재활
	심 영 주	수, 목	월, 수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근골격계 질환, 암재활
	김 호 찬	목	월, 수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재발방지클리닉 및 낮병동(조현병, 기분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이 상 신	월, 수, 금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암환자 정신건강 클리닉
	김 현 석	화, 목	화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ADHD, 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전 공 의	월, 수, 금	월, 수, 금	정신건강의학과 일반진료
	권 영 호	월	수	수부, 주관절, 흉곽출구증후군
정형외과	정 소 학	화, 목		근골격계종양, 고관절, 대퇴부
	김 창 수	금	월, 수, 목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김 지 연	월, 수	목	족부(발, 발목) 질환 및 외상, 당뇨병 발 및 창상(고압산소치료)
	심 대 무	수, 목, 금	월, 화	척추질환, 척추 비수술적 치료
직업환경의학과	김 정 원		월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천식, 피부),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 지 현	화, 금	화, 금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 현 숙	월, 목	월, 목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 현 철	월	화	근골격계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치과	김 희 진	화, 목	월, 화, 목	치과보존과
	서 고 은	월, 수, 금	수, 금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 감염, 외상, 임플란트, 매복치, 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 은 숙	화, 수, 금	화, 금	치과 보철과 일반질환
	김 민 경	월, 목	월, 수, 목	치주과 일반진료
피부과	장 민 수	월, 수	월, 수	여드름/주사, 건선, 손 · 발톱색소질환
	박 중 빈	해외연수		피부종양, 피부암, 알레르기피부질환
	서 기 석	화, 금	금	피부암, 무좀 및 진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핵의학과	성 설 화	화, 목	화, 목	피부기려움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피부질환, 백반증, 건선
	김 희 영		월, 수	핵의학과 일반진료
혈액종양내과	신 성 훈	월, 화, 금	수, 목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폐암, 간담도암, 유방암, 비뇨기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이 호 선	화, 목	월, 화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 은 미	수, 목	월, 금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 다 정	월, 수, 금	목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호흡기내과	정 현 업	월, 화	목, 금	혈액종양내과 일반진료
	정 만 흥	금	화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 대 원	월, 수, 목	수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옥 철 호	화	수, 목, 금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 태 윤		월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SNS를 통해서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새로운 병원 소식과 유익한 건강정보를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공식 SNS채널을 팔로우 해주세요.

Follow me

지금 바로 카메라 앱을 열어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Youtube



<https://www.youtube.com/@GospelHospital>

유튜브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검색 후 채널 구독



블로그



<https://blog.naver.com/kugh1951/>

네이버 블로그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검색 후 이웃 추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sinmed1951/>

인스타그램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검색 후 팔로우

독자 QUIZ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병원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원보에 모든 정답이 있는 답이 보이는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3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응답기간 : 2024년 11월 22일(금)까지
추첨결과 : 2024년 12월 중



지금 바로 카메라를 열어
Quiz 정답을 남겨주세요

독자퀴즈 바로가기



원고모집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환우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병원 소식지에 실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분량 : A4 2~3매의 원고

○ 사연 보내실 곳 : pr3700@daum.net 또는 고객지원센터(3동1층)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

우리는 그를
아름다운 의사라 부릅니다.
마음까지 치료한 의사라 부릅니다.
의로운 의사라 부릅니다.
바보의사라 부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닮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뜻을 살려 헌신하길 원하는
백년의 약속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오늘도
전인치유를 실천 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발전기금 바로가기